

원치익 선생

7

원치익 선생은 1912년 12월 3일에 원동 변강 영해구역에서 탄생하시었다. 1924년에 고령 도시 물리지위브도크에서 고등을 마갑하시고 1929년 1930년 일년간 하바롭스크 변강 알렉산드로-의 하이름가 논에서 일년간 교원으로 일하신 다음 동년 에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 1936년에 모스크바 자동차 도로 대학을 필한 다음 원동에 귀국하여 원동 영해구역 내륙부 자동차 도로 관리국 기술검정부장으로 일하신 다음 함안강제 이후 로 언하여 까자흐공화국 칩겐시에 도착하게 되 었다. 이 곳에 도착한 후 1938년 1940년간 칩겐스 시 자동차 운전자 학교 교무주임으로 일하시고 1940년 1942년 사이에는 남부 까자흐스탄 자동차 관리국 총기 사로 일하셨으며, 1942-1943년에 자동차 전문 학교 교장으로 일하시었다.

1943-1944년 간에는 남부 까자흐스탄 구역에서 전근 되어 알라아타 - 까자흐스탄 도로에 전근 되어 알라아타 구역 자동차 관리국 총기사를 일하 시었다. 1945년 1946년 간에는 알라아타 구역 자동차 총관리국 국장으로 일하시었다.

1946년 에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결정 에 따라 북한으로 국제공산당의 임무 수행 목적으로 파견 받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최치익 선생은 1946년-1948년 사이에 교동성 관하 자동차관리국 부국장 직무에서 시작하여 국장역까지 하시었다. 1948년에 중앙정부가 조직되고 내각이 편성되자 최선생은 교동성 내 교동-운수국 총국장으로 일하시었다.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이 개시되자 최치익 선생은 군대내 총원수관리국장 직무에서 군사청을 소관함으로써 1953년까지 일하시었다.

1953년에 조선전쟁이 끝나자 다시 교동성 산하 자동차-및 도로 총관리국장 직무에서 소련에 귀환하실때까지 일하시었다. 천년병도 역시 사삼검술-자백운동에 걸리어 몇달 동안 고향집을 찾다가 1961년에 소련에 귀환하셨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파견을 받은 최선생은 자라노 공화국 알타이 지역에 귀환되어, 자라노 공화국 교동성 산하 기술총관리국 부국장으로 임명되어 1972년까지 일하시었고 1989년 12월 21일에 사망하시을날까지 공화국에 연금생활을 하시었다.

최치익 선생은 연극 공화국에서 사업화 실시 극기 훈장, 자유 독립 훈장 외 무다한 메달과 영예 포상장들을 받았으며, 수십개의 소련 훈장과 메달도 수여 받았다. 현재 그의 자손들은 전복 다 알리아에서 살고 있다.

12/11/2000. M. Aukentis